

농산물 유통 거점 ‘농협 장성물류센터’ 첫발

농자재센터·하나로마트 물류센터 등 3곳 2022년까지 입주
4만4215㎡ 규모·250명 인력운영...일자리·소비 창출 기대

전남 농산물의 전국 유통 거점역할을 할 ‘농협 장성물류센터’가 일부 업무를 시작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일부터 농협 장성물류센터 내 ‘호남자재유통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김석기 농협전남지역본부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유두석 장성군수 등은 장성물류센터를 방문해 공사 진척상황과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농협 장성물류센터는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일원에 4만4215㎡(1만3375평, 2층, 대지면적 9만2132㎡) 규모로 오는 2022년까지 조성된다. 예산 902억원이 투입됐다.

군 계획시설인 이곳은 지난 2012년 전남도와 장성군, 농협중앙회가 업무협약을 맺으며 건립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7년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1월 1단계 착공에 들어갔다. 올해 8월 호남자재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1단계 준공이 완료됐다.

장성물류센터에는 오는 2022년 말까지 거점시설 3곳이 들어선다. 총 250명 인력이 운용되며 지역 일자리와 소비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자재유통센터(올해 9월)에 이어 호남권 하나로마트 물류센터(2021년 3

월), 호남권농산물유통센터(2022년) 입주가 예정됐다.

이달 운영을 시작한 자재유통센터는 1만1339㎡ 규모로 물류·하역·배송 인력 등 총 29명이 근무한다. 농업용 자재와 농기계 부품 등을 지역농협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내년부터 운영되는 호남권 하나로마트 물류센터는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농협 하나로유통 호남지사와 광주시 서구 매월동 5000평(1만6500㎡) 규모 광주물류센터가 통합된 시설이다. 면적은 2만4436㎡로, 장성물류센터에 들어서는 3개 시설 중 가장 큰 규모다.

하역 67명, 배송 77명 등 운영인력도 166명으로 가장 많다. 호남권 하나로마트 물류센터는 광주·전남·전북지역 500여 개 하나로마트에 각종 생필품과 가정용품, 농식품 등을 제공하는 물류기지 역할을 할 예정이다.

7273㎡ 규모 호남권농산물유통센터의 핵심시설은 장성군과 함께 푸드플랜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할 ‘장성군 공공급식센터’(2314㎡)이다.

농협 측은 장성물류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수도권과 호남권을 연계하는 농협물류 거점역할과 전남 농산물을 전국에 공급하는 유통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물류

■농협 장성물류센터 운영계획(4만4215㎡)

- ▲호남권자재유통센터(올 9월 운영)
 - 면적: 1만1339㎡
 - 인력: 총 29명(관리 9명·물류 3명·하역 9명·배송 8명)
- ▲호남권하나로마트물류센터(2021년 3월 계획)
 - 면적: 2만4436㎡
 - 인력: 총 166명(관리 3명·물류 7명·하역 67명·배송 77명·시설관리 12명)
- ▲호남권농산물유통센터(2022년)
 - 면적: 7273㎡
 - 인력: 총 55명(관리 29명·물류 2명·하역 12명·배송 12명)

※장성군 공공급식센터(2314㎡) 입주



김석기 농협 전남본부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지난 11일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농협 장성물류센터’를 찾아 운영계획 등을 듣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비 절감 효과를 보고, 농산물 유통시설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농협 장성물류센터가 전남 농산물 공급과 고용 확대, 소비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울 것”이라며 “물류 인프라 확충으로 전국 최고 물류거점으로 성장해 전남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6개 농협, 수해 농업인 돕기 나서



‘도농상생 영농자재 지원’에 참석한 기재만(왼쪽부터) 임곡농협 조합장, 문병우(서광주농협), 김명열(서창농협), 강형구 농협 광주본부장, 박홍식(비이농협), 이동운(동곡농협) 조합장. <농협 광주본부 제공>

기금 1억4000만원 마련

광주 6개 도시농협이 마련한 기금이 광주·전남지역 수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해 쓰인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0일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수해 농업인 지원을 위한 ‘도농상생 영농자재 지원 전달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농협, 광주비이농협, 남광주농협, 서광주농협, 서창농협, 하남농협 등 광주 6개 농협은 기금 1억4000만원을 마련했다.

이 기금은 광주지역 4개 농촌형 농협

(동곡농협, 분량농협, 삼도농협, 임곡농협)와 석곡농협 등 전남 9개 농협에 지원된다. 기금은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지원에 쓰인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 도시·농촌형 농협은 농촌 농·축협에 농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역대급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57개소 많은 160개 도시·농촌형이 동참했다. 이들 농·축협은 총 26억 원을 128개 농촌 농·축협에 지원하며 도농상생을 실천했다. /백희준 기자 bhj@

농협 전남본부, ‘다 같이 동행 예금’ 3500좌 돌파

최고 0.5% 우대금리

10월 말까지 가입 이벤트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달 20일에 출시한 ‘다 같이(다가치) 동행 예금’ 전남 지역 신규가입이 이달 9일 기준 3500좌를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국 신규가입 4만좌의 8.75%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이 상품은 출시 20일 만에 전국에서는 3만좌, 전남에서는 3000좌 이상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농협은 10월 말까지 이 예금상품에 ‘다 같이 동행 예금’은 고객이 예금상품을 가입하면 농협이 예금 평잔 액에 비례하는 금액을 농업인 실익증진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금으로 적립한다. 예금 가입만으로 공익작 실현에 동참하게 되는

상품이라고 농협 측은 설명했다.

개인 및 법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최고 0.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기간 내 농업자금일 필요한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약정이율을 적용하는 특별 중도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상품은 출시 20일 만에 전국에서는 3만좌, 전남에서는 3000좌 이상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농협은 10월 말까지 이 예금상품에 1000만원 이상 가입하고 이벤트에 참여한 개인 고객 중 추첨한 500명에 골드바 1돈(77명),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423명)을 제공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봄감자 생산량 5만 2603t...전년비 14% 감소

전남지역 올해 봄감자 생산량은 5만 2603t으로, 전년보다 14%(-8569t) 감소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봄감자 생산량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올해 봄감자 생산량은 37만6349t으로 1년 전보다 19.2% 감소했다. 2017년(32만1518t) 이후 최근 3년래 가장 적은 생산량이다.

전남 봄감자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37만6349t)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6만5340t)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난해에는 충남이 두 번째였지만 올해는 전남 생산량이 앞질렀다. 전남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5%(58ha) 증가했지만 10a(1000㎡)당 생산량이 16.1%(-434kg) 줄어 전체 생산량이 줄었다.

광주지역 올해 생산량은 전년보다 16.3%(-149t) 감소한 767t으로 집계됐다. 재배면적은 1.3%(1ha)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드론으로 병해충 예방...임곡농협 친환경 쌀 농가 대상 긴급 방제

광주 임곡농협은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병해충 예방을 위해 110여 개 친환경 쌀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항공(드론) 방제를 벌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항공방제는 지난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110여 개 친환경 쌀 농가 291ha 규모 농지에서 방제작업을 했다. 임곡농협 관할 쌀 농가는 광주 광산구 친환경 쌀 생산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벼농가에는 먹노린재, 멸구 등 돌발 외래해충 확산 우려가 있었다.

광주시는 관련 사업비 4억원을 긴급 편성해 이번 방제를 펼쳤다. 방제 작업비용은 시비 50%, 농협 30%를 지원하고 농가는 20% 상당을 부담했다.

기재만 임곡농협 조합장은 “병해충 없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확대해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일반 쌀과 차별화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임곡농협 관계자가 지난 10일 광산구 친환경 쌀 재배지에서 드론을 활용해 방제를 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